동국대 연등행렬, AI 로봇 '혜안 스님' 이끈다

윤재웅 총장, 전법특임교수 간담회서 밝혀

'혜안 스님' 현재 업그레이드 중
5월 연등회 연등행렬 참여 예정
영캠프, 체육관 아닌 대운동장서
서울 · WISE캠 1만 명 수계 목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건학 120주년을 맞은 동국대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역동적인 전법·포교를 선보일 것입니다. 동국대에서 개발한 AI 로봇 '혜안 스님'이 올해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에서 동국대 연등행렬의 선두에 설 예정입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3월 13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열린 전법특임교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 학내 주요 전법 행사 계획 전반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계·로봇 연구 전문가로 잘 알려진 임중연 동국대 기계에너지공학과 교수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AI 로봇 스님 '혜안'은 인간과 정서적 상호작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간 형태인 '세미 휴머노이드(Semi-Humanoid)'다. 지난 2월 28일 서울 봉은사에서 사찰 안내와 신도들에게 교리를 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오는 4월 29일 열릴 학내 점등식에 선보이려 했으나 업그레이드를 위해 현재 연구실에서 수리 중이다. 연등회에는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니 동국대의 새로운 면모와 저력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윤 총장은 전법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한 '영캠프'를 통해 '1만 명 수계 시대'를 열 계획을 전했다. 윤 총장은 "올해 영캠프는 장충체육관이 아닌 대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라며 "현재 수계인원을 5000여 명 이상을 예상하는데 장충체육관 수용 인원이 3500명 규모라서 이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대운동장에 무대를 설치해 5000여 명이 수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이 3월 13일 열린 전법특임교수 간담회에서 올해 학내 주요 전법 행사 계획 전반을 소개하고 있다.

이어 "이사장 돈관 스님께서는 '서울캠퍼스, WISE캠퍼스 합해서 1년에 1만 명이 수계한다'는 원력을 세웠다"면서 "학내 구성원들이 잘 준비해 1만 청년 불자 양성을 이루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 사무국의 활동 평가 계획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으며, 전법특임교수 및 지도법사 스님들의 제안·건의 등이 이어졌다.

첨단융합대학 'BUDDHAI' 전법특임교수 정천 스님은 "지역미래불자 육성장학 지원 사찰에 찾아가기 위해 전세버스를 대절해서 2~3차례 다녀왔더니 활동 예산을 전부 사용했다"면서 "고속버스를 이용했더니 참여율이 저조했다. 학교 버스를 활용하거나 지원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경영대학 다붓다붓 지도법사 무진 스님은 "정말 열심히 법회와 신행활동을 했던 학생들이 정작 영캠프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있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제21회 대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3월 15일 한마음선원 본원서
총 30명에게 장학금 수여돼
혜수 스님 "인재로 성장하길"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3월 15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5층 법당에서 정기법회 이후 '제21회 대행장학회 장학금 및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대행장학생 10명, 한마음장학생 20명 등 총 30명의 대학(원)생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가 전달됐다.

대행장학회는 묘공당 대행 선사의 유훈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큰 일꾼이 될 청년들을 격려·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대행 선사는 생전에 "이 세상에 큰 일꾼이 될 꿈나무들에게 좋은 거름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 주라"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은 3월 15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5층 법당에서 '제21회 대행장학회 장학금 및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상임이사 혜근 스님은 "대행장학회 장학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큰스님의 가르침과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장학생들이 학문뿐 아니라 마음공부를 통해 사회에 밝은 영향을 주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대행장학회의 장학생은 한마음선원 본원과 각 지원에 소속된 대학생 가운데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청년회·학생회·어린이회 활동 등에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당 스님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대행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지수 학생(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은 "바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도 일체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고 나아가라는 큰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을 때가 많다"며 "이번 장학금을 통해 학업에 더욱 정진하는 것은 물론 마음공부도 성실히 이어 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서 이사장 혜수 스님은 장학생들에게 "오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본원과 각 지원에서 신행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어린이회와 학생회 활동을 통해 후배들을 이끌며 학업과 마음공부에 함께 정진해 온 만큼 장학금을 받기에 마땅한 인재들"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이 장학금은 단순한 학비 지원을 넘어 큰스님께서 내려 주신 마음의 에너지와도 같은 것"이라며 "앞으로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행장학회는 한마음선원 후원자들의 정성 어린 마음이 모여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청년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대불련, 교구본사서 동시 템플스테이

3월 28~29일 · 4월 4~5일
불교동아리 60여 곳 참여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선민지, 이하 대불련)가 3월 28~29일과 4월 4~5일 전국 조계종 교구본사에서 동시에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대불련 각 지부와 해당 지역 교구본사가 손잡고 대학생 전법 포교에 나설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국 지부 동시 템플스테이는 지역 대학생 전법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특히 각 지부와 연계돼 있는 해당 지역의 교구본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구본사와 지역 대학 불교동아리의 네트워크 구축이 이뤄지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깊다.

조계종 포교부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대경, 부산, 충북, 공주, 광주, 전북·익산, 경남·울산·창원, 제주 등 전국 15개 지부에서 불교동아리 60여 곳이 참여한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제5교구본사 법주사 △제6교구본사 마곡사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제15교구본사 통도사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제25교구본사 봉선사와 석종사, 학림사 등 전국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신입회원 모집이 마무리돼 가는 시기에 개최되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동아리에 가입한 회원들이 전통 사찰 문화를 경험하고 신심을 키우며 바른 대학생 불자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선민지 대불련 중앙회장은 "대불련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템플스테이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행사가 대학생 불자들이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평생을 함께할 도반을 만나는 소중한 유대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도리사 시민치유선센터' 첫 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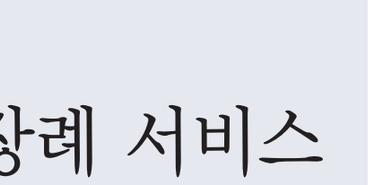
3월 12일, 착공식…2027년 6월 완공

구미 도리사(주지 묘원 스님)가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수행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대규모 불사에 착수했다.

도리사는 3월 12일 경내에서 '도리사 시민치유선센터'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봉행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사진〉

'도리사 시민치유선센터'는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리사가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해 온 프로젝트다. 연면적 1121㎡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지어지며 14개의 크고 작은 선방(禪房)과 명상홀, 휴식 공간 등을 갖춰 오는 2027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주지 묘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1600년 전 신라에 불교가 처음 전해진 도리사의 전통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시민들의 마음 치유 공간 조성 및 명상문화 확산을 위해 회주 법등 스님이 원을 세워 오늘에 이르게 됐다"며 "이곳을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회주 법등 스님은 격려사에서 "소중한 인연이 모여 불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도리사만의 전통을 바탕으로 이곳을 모든 이들이 찾고 싶어 하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번 선센터는 한국 건축의 거장인 승효상 건축가가 설계를 맡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승효상 건축가는 "단순한 건축물 이상의 큰 뜻을 담고자 노력했다"며 "하루에도 몇 명씩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명상센터는 하나의 시설이 추구하는 것 이상의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미 도리사=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